

## “이럴거면 현정부 손 떼라”

박준영지사 호남고속철 구선로 사용 전면 공격

“소송해서라도 정부 계획 막겠다” 초강경 발언



박준영 전남지사가 현 정부의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 기존 노선 활용 방침을 놓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현 정부는 손을 떼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지사는 공개장소에서 KTX 노선 선정 문제와 관련,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박 지사는 9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회’에서 KTX 광주~목포 구간 노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2조원이 드는 신설 노선이 아니라 1조원을 들어 기존선을 개량, 활용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 1조원을 그렇게 버릴 필요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한 “호남선 복선화 공사에 36년이 걸렸다”면서 “그 정도면 목포에서 대전까지 달팽이도 왔을 것, (광주·전남은) 그렇게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어 “(기존선을 활용해 추진할 거라면) 이 정부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이어 “정부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노선 선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스룹’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송이라도 할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그렇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도시환경 새지표 담은 ‘광주 선언문’ 발표

광주시 10월 유엔 도시환경광주정상회의서…녹색도시상도 제정

광주시가 오는 10월 1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열리는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에서 도시환경평가지표와 도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환경개발체계)를 담은 광주선언문을 발표하고 2013년부터 격년제로 세계 각 도시를 대상으로 한 녹색도시를 선정해 수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는 8일 “현재 개발돼 있는 도시환경평가지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도시

CDM의 기본틀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지표와 도시 CDM은 세계 각 도시에 보급될 수 있도록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 개발하고 실제로 두드러진 도시에 대해 녹색도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UNEP·광주 저탄소 녹색도시대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선언문은 오는 8월까지 UNEP 및 참여도시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정상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작성은 광주선언문 기초위원회가 맡게 된다. 2년마다 수여하는 ‘UNEП·광주



저탄소 녹색도시대상’의 시상금은 3억 원이며, 도시 평가·분석을 맡는 사무국 운영 등과 함께 모두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1년 남은 여수세계박람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 신항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박람회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람회장 주변에도 건설 중장비들이 분주히 오가며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는 등 막바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하루 7000명 투입 박람회장 공사 박차

참가국 신청 쇄도 접수 중단하고 전시공간 검토

거리 곳곳 홍보 플래카드…시민들 손님맞이 분주

으로 전문화적인 액수다.

공사가 활기를 띠면서 박람회 주제를 함축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영구 시설인 주제관(지상 2층·연면적 7413㎡)의 1층 철골 구조물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관(지상 3층·연면적 5248㎡)과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지상 4층·연면적 1만 6400㎡) 등도 공정률이 각각 43%와 45%로 목표를 넘어서면서 건물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다odge 층을 형상화한 지붕으로 유명한 국제관과 바다 위에 꾸며지는 핵심 시설인 ‘빅오’(BIG-O)도 파밀 박기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관

계자는 “축구장 203개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공정률이 50%를 넘어서고 이대로라면 내년 2월까지 건축물과 내부 콘텐츠 설치를 마무리해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장뿐 아니라 박람회 관계자들의 숙소로 활용되는 액스포타운 아파트와 282실 규모의 고급 숙박시설 공사도 계획 공정을 넘어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00개국을 목표로 진행되는 참가국 유치도 원활하다. 현재 93개국의 참가가 확정됐고 보다 많은 전시 공간을 요구하는 나라들의 문의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에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읊긴듯한  
뮤제오 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취급점 대포카 / 체피 / 리콘테시나 / 오리자닐레

광주광역시 서구 학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